

#### 4 장 승리하더라도 온유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4:2)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humble and gentle in victory.

**온유:** 승리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말과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과 삶의 모습에서 나온 것들인데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을 꼽자면 청량리중앙교회의 원로목사이신 임택진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분의 삶과 말씀들이 저에게 점점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임 목사님이 시무 중 큰 교회의 청빙을 받고 교회를 떠나시려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눈치 채고 목사님을 막았습니다. 교인 대표로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목사님을 만류하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에 가시면 월급을 많이 드릴 텐데 만일 그것 때문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목사님 생활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소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명언 중의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소시장의 소 노릇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았던 임 목사님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장 고생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사모님이십니다. 임 목사님의 사모님은 정말 빠듯한 살림 때문에 그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다시 이렇게 살라면 살지 뭐.”

어느 부자에게도 찾을 수 없는 삶의 당당함과 멋을 느끼게 하는 정말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가난이 싫지만 무섭지는 않다는 사모님이나 그와 같은 가난 속에서도 소시장의 소처럼 살지 않겠다는 목사님의 말씀과 삶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함과 가난을 무서워하지는 않는 용기를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목사님은 65세로 은퇴하셨습니다. 임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년 제도를 주창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65세 정년을 주창하셨지만 총회에서 의논하던 중 70세 정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70세로 결정되었지만, 65세를 주장하던 사람이 70세까지 정년을 할 수 없다며 그냥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삶을 사셨고 막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교회를 그만두시면 정말 경제적으로 막막하셨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은퇴식 중에 목사님의 인사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은퇴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인사는 참으로 어이없을 만큼 간결했습니다.

“명한 대로 하었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9-10). 이 말씀을 암송하신 후 “그동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만 하시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고 근사했습니다. 저도 은퇴식 때 꼭 그렇게만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저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와 같이 근사한 말로 은퇴를 하고 싶어서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근사한 은퇴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늘이 없는 큰 나무**

청량리중앙교회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모교회입니다. 남달리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임 목사님 때 건축했던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을 만큼 교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낡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임 목사님 댁을 찾아가 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 저도 모르게 “그거 왜 쓸데없이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임 목사님도 최소한 “그러게 말이야”라고 맞장구를 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교회가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이상의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청량리중앙교회를 전심전력하여 목회하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해오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는 분을 이제껏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흔히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크다”는 말을 합니다. 임 목사님은 정말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그늘이 없는 큰 나무’ 였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늘이 전혀 없는 큰 나무입니다. 저도 그늘 없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도 내 인생의 흠륵을 칠 수 있다**

청량리중앙교회에서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입니다. 주일 장년 출석이 500 명 정도 되던 때 교회 재정의 1/3 을 혼자서 헌금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화폐가치로 대충 계산해보았더니 일년에 최소한 2 억원 정도를 헌금하신 셈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렇게 헌금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셨습니다. 저를 가족같이 아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당회에 건의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로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 가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든, 연보를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많이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근사한 명언 중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려고 하는 명언은 앞 장(3 장)에서 인용했던 장훈 선수의 말입니다. 자기를 조센징이라고 놀리며 “조센징 가라, 조센징 가라”를 외치는 일본 관중을 향해,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대고 일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담장 밖으로 쳐버렸던 장훈 선수의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라는 말 또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명언 중 하나입니다.

가난할 때,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쓸데없는 열등의식이 발동할 때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나 가난하다.” 그와 같은 생각과 말은 상상 이상의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얼마든지 나도 내 인생의 흐름을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인생의 힘이 된 명언들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명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오.”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내 교회가 뭐?”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이 말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오”,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입니다. 이 유형의 공통점과 특징은 모두 가난하고 약할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할 때는 쓸 수 없는 말들입니다. 첫째 유형의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난하고 약하지만 당당하고 밝음’ 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근사하고 훌륭한 것은 꼭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강하게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근사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굴해지고 뼈뿔어질 때 추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내 교회가 뭐?”,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입니다. 이 유형의 공통점과 특징은 모두 강하고 부할 때에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충성되게 일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 “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가 “내 교회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가난하거나 인색하여 연보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형의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부하고 강하지만 겸손하고 자기주장을 하지 아니함’이 됩니다. 비굴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약자와 교만하고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강자는 모두 훌륭하지 못합니다. 근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고 긍정적인 약자와 겸손하고 자기주장을 함부로 하지 않는 강자는 정말 훌륭하고 근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배움을 통해 제 삶의 환경이 첫째 유형일 때는 첫째 유형에 맞게, 둘째 유형일 때는 둘째 유형에 맞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승리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

맥아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강자입니까 아니면 약자입니까? 당신이 만일 지금 강자가 아니고 약자라면, 그리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면, 강하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약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조건 강자와 부자를 시기하며 빈정거리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고 약하지만 늘 당당하고 긍정적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일 강하고 부한 상태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힘과 권리를 자신만을 위해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늘 배려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 부와 가난을 문제 삼지 않는 교회

저는 빈민 구호를 사명으로 여기는 유명한 교회 모임에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자들만 모인다고 하는 몇몇 대형교회들이 별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들도 와야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들 "아멘" 하며 수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척 좋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와 똑같은 의미에서 빈민을 위하는 그 교회도 '부자 교회'라는 평판을 듣는 몇몇 대형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용기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소위 '부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면, 빈민을 위하는 그 교회는 부자들이 오기 불편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자들이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부자들이 다니려고 애를 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큰 차를 타고 교회를 와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편하고, 실제로 교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부자들이 마음 놓고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교회도 부자들이 주로 다닌다는 건강하지 않은 몇몇 대형교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형교회들에는 자가용이 없는 교인들이 좀 더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되고, 빈민을 위하는 그 교회에는 자가용, 그것도 고급 자가용을 탄 교인들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높은뜻송의교회)는 조금(?) 좋은 교회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부자 교회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유한 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인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되는 것이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 되는 것도 싫습니다. 부함과 가난함이 전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끼리만 모이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 힘든 일이 가능해지려면, 교인들이 '당당하고도 긍정적인 약자'와 '겸손하고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강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약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당당함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참믿음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부자와 강자가 되게 하기 이전에 먼저 당당하고 긍정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오",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와 같은 말을 하며 사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강하고 부한 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부할 때,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내 교환가 뭐?”,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와 같은 말을 하며 사는 정말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난해도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고도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부해도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정말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아더 장군의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 1.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양육하라

약하고 가난해도 얼마든지 근사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굴해지고 뼈뺏어질 때 추해진다. 가난하고 연약하더라도 당당하고 밝을 수 있다. 깨끗하고 성실한 낮은 자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강자를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줄 수 있는 도량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라.

### 2. 강자의 자리에 서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양육하라

부하고 강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자신만을 위해 주장하지 않는 멋진 자녀로 양육하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늘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일은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범을 보임으로 가능하다.

### 3. 당당한 낮음과 겸손한 높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약자에게 가장 힘든 것이 당당함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이다. 그러나 참믿음은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과 밝은 삶의 태도를 심어준다. 강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믿음은 강하고 부한 자를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든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다.